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 10 Vol. 48

Vol. **48**
2022. 10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윤지용 회장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이슈 & 포커스
부산 고교 야구의 양대 산맥
경남고 VS 부산고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8**
2022. 10

발행일 2022년 10월 17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48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편집인 성기환
편집·취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김민기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

건강한 육체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윤지용 회장

08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원로체육인회
서경애 사무처장

12
부산스포츠 히어로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16
스포츠 in 과학
스포츠는 과학이다



04

강

강인한 정신

20
부산체육 이야기
생활체육도시 부산, 부산은 스포츠 多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26
달려라 부산체육
영남알프스패러글라이딩스쿨·클럽

30
내일은 체육왕
월계수스포츠클럽



24

한

한마음 광장

34
이슈 & 포커스
부산 고교 야구의 양대 산맥
경남고등학교 VS 부산고등학교

38
부산스포츠 기자단 에세이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 속으로

40
스포츠 PLUS
팀워크로 이뤄내는
멋진 스포츠 야구

42
오늘의 10분 운동
행복을 위한 행보(行補)

44
슬기로운 건강생활
나의 정신 건강을 지켜라!
치매 예방을 위한 3·3수칙

46
이달의 책
말의 품격



26

생

생생한 소식

48
체육회 사업소개
생활체육 동호인의 대축제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

50
BSC 뉴스

52
구·군체육회 소식

55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58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59
공공스포츠클럽 소식



48

함께해서 행복한 자전거인(人)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제5대 회장,
(주)용진테크 대표이사 **윤지용**

윤지용 회장의 오랜 취미는 골프다. 평균 80타를 칠 정도로 수준급의 골프 실력을 지닌 그에게 작년부터 골프보다 중요한 취미가 생겼다. 바로 '자전거'다. 우연히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과 인연이 닿아 이제는 윤 회장 인생의 필연이 된 자전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뜻밖의 인연으로 만난 자전거

“80년대만 하더라도 자전거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타고 약수물을 떠오라며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자전거와 관련된 추억을 회상하며 미소 짓는 윤지용 회장은 어린 시절 외에는 특별히 자전거와 인연이 없었다. 그러던 중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공식이던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회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에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었다고.

“역대 연맹 회장님들의 이름 석 자만 대도 자전거계에서 알아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연혁과 업적을 보니 '내가 감히 자전거연맹을 대표할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았죠. 오히려 연맹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음으로써 연맹에 누를 입히는 게 아닌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회장이 회장직을 수락할 수 있었

던 것은 연맹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의기투합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는 연맹인들의 강한 의지를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윤지용 회장은 2021년 1월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감투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던 그는 취임 후 사람들을 만나면 자전거연맹 회장임을 드러내지 않았단다.

“마치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숨겼는데, 제 착각이었죠. 저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전거를 홍보할 기회더라고요. 이를 깨닫고 나서는 어딜 가나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윤지용 회장입니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자전거를 홍보함으로써 후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연맹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윤지용 회장이 자전거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서는 데엔 이유가 있다. 바로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자전거인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수 육성이 활성화되어 관계자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져야 합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멈춰진 자전거를 정비하는 시간

현재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은 과도기를 겪는 중이다. 윤 회장이 취임하기 전 2년 동안 자전거연맹회장은 공석 상태였다. 즉, 연맹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뜻이다. 1976년 창설되어 46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자전거연맹은 찬란한 명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자전거연맹의 미래가 없다면 과거의 역사도 묻혀버리는 것. 윤지용 회장은 현재 자전거연맹의 상황을 직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이가 되자.’ 연맹 가족들이 자전거로 인해 행복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한 출발점은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의 내실부터 다지는 것.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자전거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이왕이면 근사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잔치가 풍

성한 만큼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니까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자전거를 향한 애정 넘치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전거연맹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맹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부분으로 ‘복지’를 꼽았다. 적어도 연맹인들이 자전거를 통해 생업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윤지용 회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코칭 및 스태프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는 전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자전거부나 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사하중학교 외에는 중학교 자전거부가 없으며, 특히 여자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도 부족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산을 떠난 자전거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가 비인기종목이다 보니 수도권에 더욱 몰려들고 있죠. 자전거인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수 육성이 활성화되어 관계자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 사이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등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안긴 이해진 선수 외에도 유망주 선수들이 부산에 있는 만큼 이들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모색 중이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한자전거연맹과의 만남을 통해 엘리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큰 업적을 남긴 자전거 원로인을 예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자전거인들이 하나로 뭉치길 기대하고 있다.

선순환으로 자전거 바퀴를 굴리다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다. 부산에는 낙동강변은 물론 다양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실내, 산악, 전기 자전거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전거의 매력은 생활체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강서구, 사하구,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 5개 구 내에 자전거 연맹이 있는데, 동호인 수만 하더라도 2~3만 명이나 되죠. 비공식 인원까지 합치면 부산광역시 내에 30만 명의 동호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자전거 전문 대회를 나가는 동호인도 많으며,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스포원 등 자전거경기장도 잘 갖춘 만큼 부산의 자전거는 인적·환경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셈이다.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맹을 통해 활동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동호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순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자전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많은 동호인이 집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회 개최’이다. 내년 봄 자전거연맹회장배 유소년대회를 시작으로 성인부 등 각종 대회를 열고자 준비 중이다. 윤지용 회장은 대회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해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회, 2회, 대회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훗날 100회 대회엔 부산 30만 동호인들이 모여 자전거를 즐기리라 생각됩니다. 대회를 통해 자전거인들이 하나 되고, 뛰어난 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유능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의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꿈자면 ‘자전거’일 것이다. 함께해서 행복한 이들이 되자는 윤지용 회장의 철학은 자전거와 딱 맞아 보인다. 지금부터 윤지용 회장과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이 달려 나갈 자전거 종주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최초’를 넘어 ‘정도(正道)’를 향한 소신

부산광역시원로체육인회 서경애 사무처장

우리나라 여자 유도 최초 7단 취득,
최초의 여자 유도 심판...

서경애 원로는 하나도 얻기 힘든 ‘최초’라는 타이틀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 그를 만나 최초라는 타이틀
안에 담겨 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말괄량이 중학생의 일탈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운동 신경도 좋아서, 유도를 접하기 전에는 배구 선수였습니다.”

서경애 원로는 남성여자중학교 배구 선수였다. 1960년대 당시 남성여자중학교는 배구 명문이었었는데, 그는 뛰어난 기량으로 장학생으로 입학해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으로 일본에서 열린 유도 대회를 보고는 순식간에 유도에 매료되었다.

“100명, 200명이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고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저걸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유도의 ‘본(本)’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서경애 원로는 공장 동네 유도장으로 갔다. 그런데 유도장에서 서경애 원로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여자 유도 공식 첫 시합이 1979년도에 생겼다고 하니 서경애 원로가 유도를 하려고 했을 땐 여자 유도 선수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유도장 문 앞을 지키며 청소를 하거나 물을 떠다 놓는 등 허드렛일을 자처하며 6~7개월을 보냈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유도장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받았다.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하시더니 냅다 저한테 엮어치기를 하셨어요. ‘이제 나를 가르쳐주려나 보다’라는 생각에 아픈 것도 못 느끼고 마냥 좋았어요.”

그 시절의 분위기는 여자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아주 말괄량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서경애 원로는 배구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괜한 눈초리를 받았고, 유도를 한다고 했을 땐 온갖 모진 말까지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았단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고 일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유도인의 길을 걷고 있다.

‘최초’라는 수식어 안에 담긴 이야기

서경애 원로는 유도장에서 유일무이한 여자 선수였다. 그러니 기술을 익힐 때는 물론이고 겨루기를 할 때도 상대 선수는 언제나 남자일 수밖에 없었다.

“유도에 ‘굳히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때는 여자가 그런 기술을 한다는 걸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는데, 저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막 조르고 누르고 하니 상대방이 당황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부산 지역 ‘여자 유도인 1호’가 된 그는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 금방 초단을 땀고 동아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5단을 땀다. 비록 시대적인 분위기에 부딪혀 대학은 체육학과가 아닌 가정학과로 입학했지만, 가정학과 수업을 들으면서도 유도부 훈련에 참여해 계속해서 실력을 쌓았다. 그리고 끝끝내 교육대학원 체육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1975년 부산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시작으로,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에서 유도를 가르쳤다. 서경애 원로의 유도인으로서의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976년에는 우리나라



라 여자 최초로 '유도 1급 심판 자격증'을 땀고, 우리나라 여자 최초 유도 6단(2004년)에 이어 7단(2014년)을 취득했다.

“6단은 ‘응당’ 따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코치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남포동에서 서면까지 달리고 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면서요. 그리고 10년이 지나 7단을 땀습니다. 7단은 심사를 본 자리에서 바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는데, 합격 발표를 듣고 그때 처음 울었어요.”

유도는 5단 이후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단을 취득할 수 있다. 서경애 원로는 50대에 6단을 취득했고, 60대에 7단을 취득했다. 그러니 체력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여자 7단이 없으니 도전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도 어쩌면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냈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유도’와 ‘봉사’는 나의 일상

중학생 때 유도를 접한 후부터 유도는 줄곧 자신의 일상이었다는 서경애 원로. 그런 그에게 6단을 취득하기까지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육아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도만큼 ‘봉사’를 일상화했다. 이웃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둘 응했던 일이 나중에는 자신이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만든 것이다.

“남은 생이라고 하면 조금 우습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하고 싶어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구청으로 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연고가 없는 이의 장례를 치르는 등 물심양면으로 애썼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일본어 통역도 맡았었다. 그의 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나서기에 동네 사람 누구나 그를 반긴다. 서경애 원로가 7단을 취득했을 땐 그를 축하하느라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다고.



체육이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는
종목이 다르다고 경쟁해서는 안 되며
체육인은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유도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부산 여자 유도의 한 획을 그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교단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인간성’을 강조한 서경애 원로는 ‘오로지正道(正道)만 걸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체육이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는 종목이 다르다고 경쟁해서는 안 되며 체육인은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서경애 원로는 2023년에 8단 취득을 목표로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유도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또 하나의 ‘최초’라는 수식어가 그에게 붙을 것이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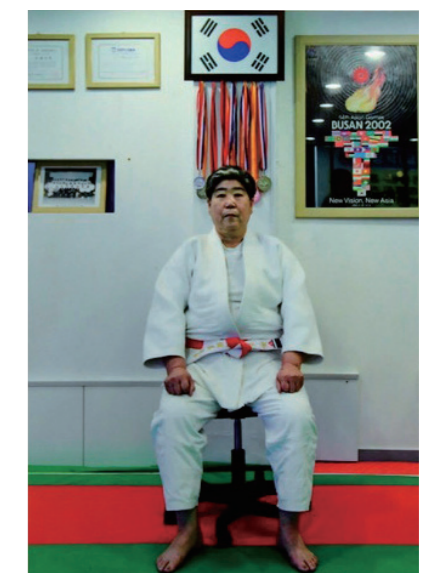
PROFILE

주요 이력

- 전)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 전) 부산광역시유도회 부회장
- 전) 부산여성유도회 회장
- 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원로자문단
- 현) 부산광역시원로체육인회 사무처장
- 현)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부회장
- 현) 부산광역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수상 내역

- 1975년 대한유도여자심판 제1호
- 1981년 대한체육회장상
- 1990년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표창상
- 1998년 제19회 부산빅스타대상 행정부장관상
- 2000년 한국관광공사상 자원봉사 부문
- 2002년 부산진구청장상 표창상
- 2002년 부산광역시장 표창상 (총 3회 수상)
- 2003년 대한유도회장상 공로패
- 2005년 사회체육대상
- 2011년 모범선행시민상
- 2022년 부산광역시유도회 표창상



유쾌한 에너지로 필드와 트랙을 사로잡다!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지난 7월 열린 제60회 부산시 초·중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달리기·계주·허들·세단뛰기·장대높이뛰기·창던지기 등 각종 종목에서 입상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한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유쾌한 에너지로 필드와 트랙을 누비는 10인의 선수를 만나보았다.

다양한 성과를 이룬 2022년

1991년 창설된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는 지난 5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는 출전한 대회마다 두각을 드러냈는데, 특히 제60회 부산시 초·중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9개 세부 종목 입상 및 금 7, 은 5, 동 1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에 진수지 부감교사는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가졌음에도 실력을 발휘할 무대가 적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1학년 학생들까지 종목을 선정해 출전한 만큼 모든 선수들이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육상부와 함께해온 오대중 코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감회가 남달랐다.

“우리 육상부 선수들은 의지가 넘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데, 이 분위기는 학생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유쾌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육상을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 덕분에 저희 지도자들이 더욱 힘을 얻습니다.”

한참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도자들은 그들 각자의 말, 행동, 표현 방법에 맞춰 훈련과 피드백을 해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지도자와 선수 간의 긍정적인 교감은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인 셈이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선수 육성을 위한 시스템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는 다양한 세부 종목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 종목을 결정하지만, 이후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더 적합한 종목으로 전향하기도 한다. 육상부는 요일마다 각 세부 종목별 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선수들은 스피드와 체력 훈련을 진행한다. 수·목요일에는 육상 기초 훈련을 함께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상은 맨몸으로 하는 운동인 만큼 기본 습관과 자기 관리법이 중요하다. 육상부는 이를 철저히 지도함으로써 선수들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선수들에게 성적에 대한 압박을 주기보다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노력하고 있다.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육상부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체크해주고 있으며, 부산대신중학교 교직원들은 SNS를 통해 선수들의 대회 일정과 사진을 공유하며 열성적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육상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전도유망한 육상 선수로 성장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반전 매력 넘치는 선수들

현재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는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4명 등 총 10명의 선수를 육성 중이다. 활발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만큼 장난기도 많지만, 필드와 트랙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며 반전 매력을 뽐낸다. 육상부를 대표해 민권홍, 이영욱(1학년), 김성윤(2학년), 조성우(3학년) 선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민권홍 선수는 오대중 코치의 권유로 부산대신중에 오게 되었다. 최근 장대높이뛰기로 종목을 전향하면서, 장대를 찌고 높게 점프할 때마다 짜릿한 매력을 느낀다고.

“최근 출전한 대회에서 처음 넘어야 했던 높이가 3m였는데요. 아직 제게는 높지만 넘어려고 시도한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내년에는 3m 40cm를 넘는 것을 목표로 더 높게 날아오르고 싶어요.”

이영욱 선수는 최근 대회에서 100m, 200m 2위를 기록하며 단거리 종목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평소 조용하지만, 대회장에서는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한다고.

“육상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앞으로 달리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성윤 선수는 50m를 7.2초에 주파할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다. 김 선수는 기록이 잘 나올 때를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육상을 즐기는 중이다.



“저는 110m 허들이 주 종목인데요. 저만의 리듬감을 가지고 허들을 넘으며 질주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훈련에 집중하고, 이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복근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조성우 선수는 작년과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장대높이뛰기에서 동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유망주다. 3m 90cm의 공식 기록을 보유한 조 선수는 부산체육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평소 조용한 편인데, 도약에 성공하면 함성을 지를 정도로 대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운동에 더욱 매진하여 장대높이뛰기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세 선수는 항상 밝게 웃으며 대해주는 지도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료 선수들에게는 육상부 분위기가 좋은 만큼 즐겁게 운동해서 앞으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자는 응원을 남겼다. 유쾌한 에너지로 육상을 즐기는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육상 필드와 트랙 위를 날아다닐 선수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부산대신중학교 주요 수상내역

- 1991 육상부 창단
- 2017 제29회 교육감배 육상대회 겸 제6회 챌린지 육상대회 남중부 종합 우승
- 2019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중부 세단뛰기 금메달
- 2021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육상경기) 장대높이뛰기 동메달
- 2022 부산광역시 학생체육대회(육상경기) (금 4, 은 3, 동 3 획득)
- 2022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육상경기) 장대높이뛰기 은메달
- 2022 제60회 부산시 초·중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 종합 우승 (금 7, 은 5, 동 1 획득)

Mini Interview

DAESIN Middle School

이상민 교장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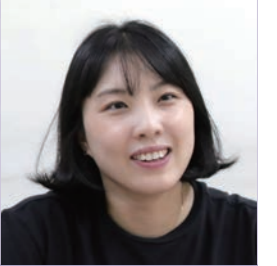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는 1991년 창단되어 31년 동안 뛰어난 육상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육상부가 훈련하는 구덕운동장이 공사 중이라 훈련이 쉽지 않았음에도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올해 각종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둬주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부산대신중학교에서는 지금처럼 전 구성원들과 학부모님들이 한마음 되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육상이 개인 종목이지만, 육상부라는 단체 활동을 하는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대중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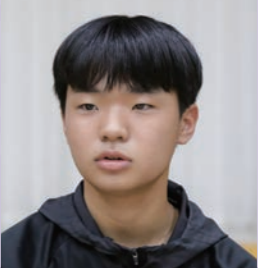
진수지 부감교사



민권홍 학생



김성윤 학생



조성우 학생



스포츠는 과학이다

S p o r t s a r e s c i e n c e



Professional Experience



글 · **진영완** 교수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운동역학전공

스포츠과학의 의의

스포츠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스포츠 현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하여 스포츠활동과 관계있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등 나아가서는 스포츠활동 자체에 유익한 과학적 지식의 획득을 추구하고 스포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에 따라 자동화되고 기계화된 편리한 생활로 인해 신체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체의 움직임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신체 기관의 기능도 저하된다. 기능 저하는 노화의 진행을 당길 뿐 아니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규칙적인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체력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문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활동에도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밝혀 이를 스포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과학적 지도가 이루어지며 스포츠과학이 발전하는 것이다.

스포츠과학의 역사

스포츠과학은 기원전 1800년대에 운동을 질병 치료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금욕주의 사상으로 육체적인 활동을 죄악시하면서 체육 및 스포츠의 암흑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덴마크체조, 스웨덴체조, 독일체조 등의 맨손체조가 활발히 개발되어 스포츠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6년에 시작된 근대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선수들의 기능과 체력을 분석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이 활용되었으며 이후 4년마다 열린 올림픽대회에서는 스포츠과학 발전의 경연장으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예를 들면 1908년 제4회 런던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거리를 42.195km로 정하였으며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올림픽대회에서 400m 트랙이 처음 설치되었다. 1960년 제17회 로마올림픽대회에서는 최초로 주요경기를 인공위성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되었고,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약물복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대회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선수도 있었다.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에서는 혈액을 이용하여 도핑테스트를 시작하였으며 전신수영복, 윈더슈즈 등 첨단장비가 대거 사용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를 전후하여 스포츠과학 분야의 연구가 다양한 학문적 영역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스포츠과학 분야

스포츠과학 분야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체육철학·스포츠사회학·스포츠심리학·스포츠교육학 등)와 자연과학 분야(운동생리학·운동역학·운동학습 및 제어·스포츠 의학 등)로 나뉘어진다. 본 글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인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S p o r t s p h y s i o l o g y



운동생리학(sports physiology)

운동생리학이란 일회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초래되는 생리·기능적 변화와 그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다. 즉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체의 반응과 적응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반응과 적응이 인체의 기능적 측면, 주로 수행력과 건강 등에 어떠한 생리적 의미를 갖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근력운동과 심폐 지구성 운동은 인체의 여러 계통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성별, 연령, 신체적성 수준, 식사 조건은 물론 그 운동이 행해지는 고온이나 고지대와 같은 외적 환경 조건에 따라서 기대될 수 있는 인체의 기능적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스포츠 지도자와 건강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운동 시 일어나는 인체의 생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도자의 선행조건이 된다.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의 입장에서 선수의 선발과 훈련에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운동 자극과 반응을 체계적으로 평

가하고 본인이 지도하는 선수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물론 운동생리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과학적 접근이 경기력 향상에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적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스포츠의 수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가 개최된 1980년대에는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운동생리학 연구들이 많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등 성인병에 관한 임상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20세기까지는 운동과학의 연구 주제가 인체의 기관, 조직 및 세포 수준이었으나, 21세기에는 이에 덧붙여 분자 수준까지 연구 주제가 발전해가는 세계적인 동향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운동생리학 연구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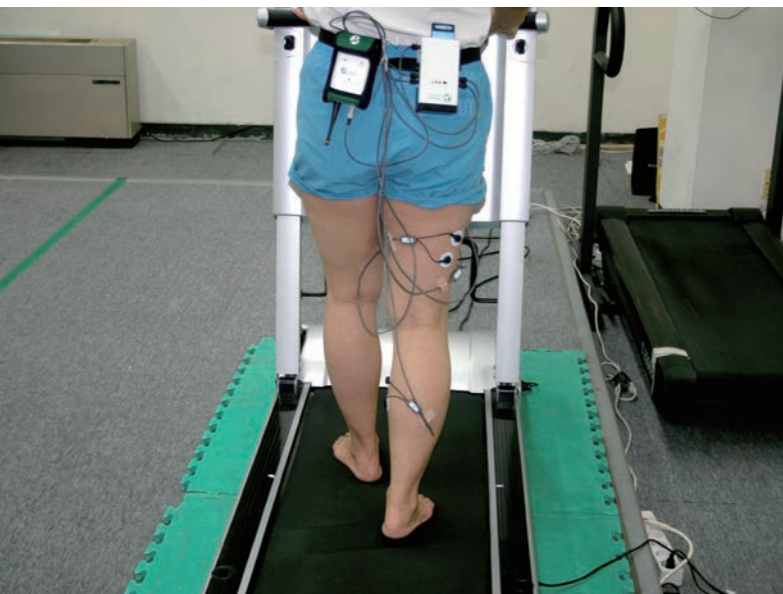


그림 1 운동생리학 분야 실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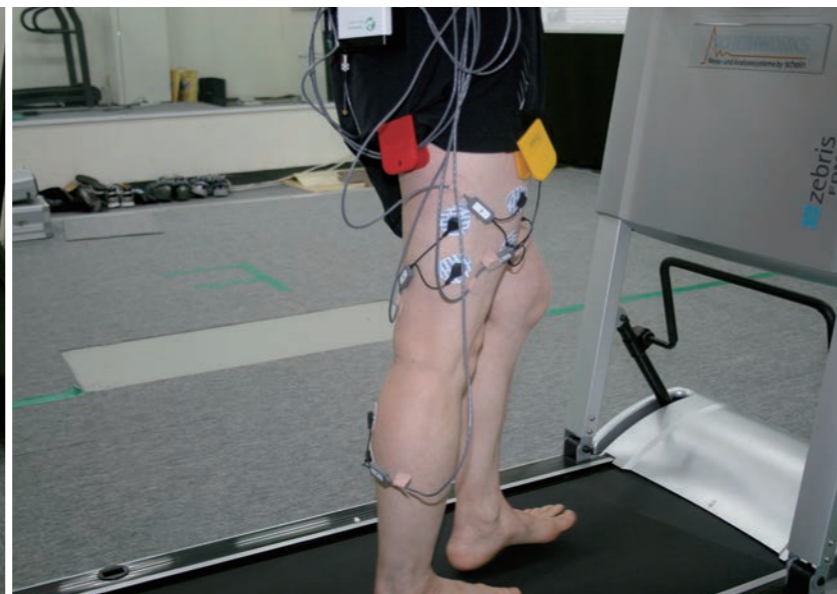


그림 2 운동역학 분야 실험 장면

S p o r t s b i o m e c h a n i c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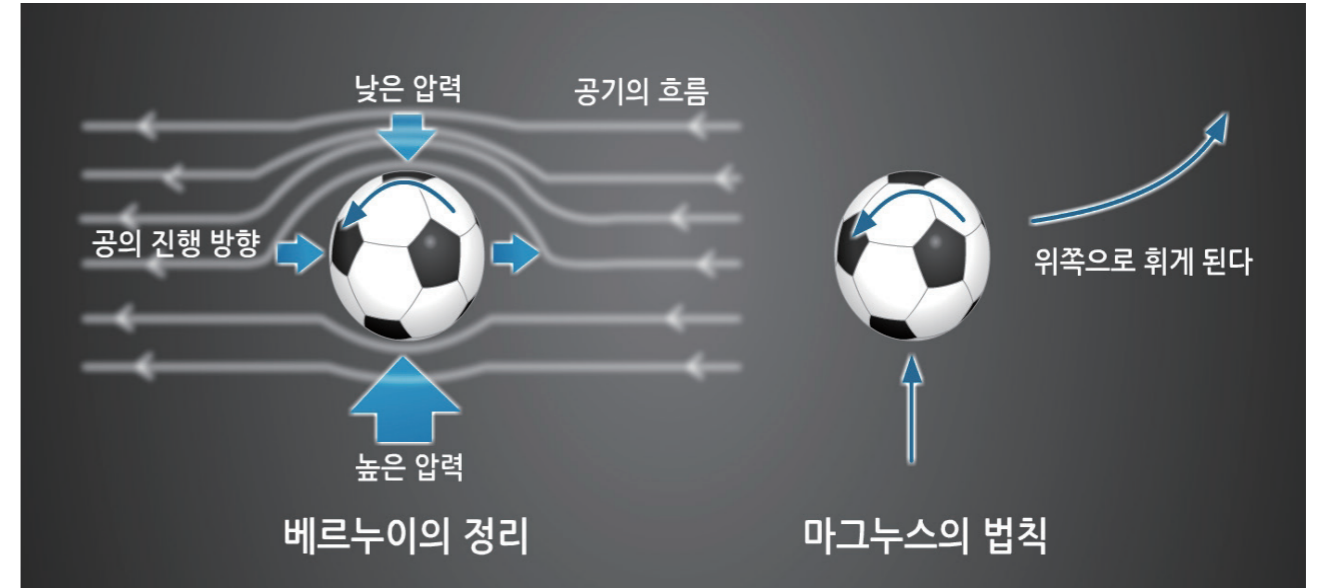


그림 3 베르누이 정리와 마그누스 효과 (참조 : 에듀넷 티 클리어 <https://www.edunet.net>)

운동역학(sports biomechanics)

운동역학이란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계적 원리와 방법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이다. 특히 운동역학은 그 대상을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과 환경으로 하고 있어 인체의 기본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것뿐 아니라 도구, 스포츠 장비, 인체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및 이들 기구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따라서 운동역학 분야는 인체해부학, 생리학, 신경조직학, 운동 재활뿐만 아니라 공학, 컴퓨터과학, 수학, 물리학 등 많은 타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야구공이 커브를 그리면서 날아가고, 축구에서 바나나 킥으로 공이 멋지게 골망을 흔드는 장면은 유체역학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스위스의 이론 물리학자 베르누이(Bernoulli)는 빠르게 흐르는 유체는 느리게 흐르는 유체보다 낮은 압력을 전달한다

는 걸 발견하였다. 독일의 과학자 마그누스(Magnus)는 공이 회전할 때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공기의 속도가 빠른 쪽은 압력이 낮고 공기의 속도가 느린 쪽은 압력이 높게 나타나서 야구공이나 축구공이 날아갈 때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밀어낸다는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를 마그누스의 힘(Magnus force) 혹은 마그누스 효과(Magnus effect)라고 정리하였다.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는 이유도 위와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스포츠과학의 원리는 생활 스포츠 분야, 전문 스포츠 분야 더 나아가 현대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에 많은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적용하고 있다. 유능한 체육 교사, 물리치료사, 코치, 트레이너 운동지도자 등은 스포츠과학의 개념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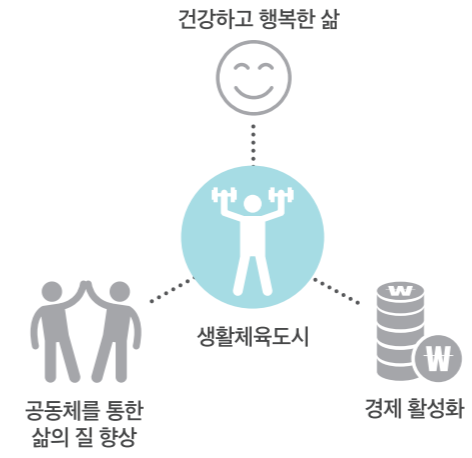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정책브리핑 : 부산 먼저 미래로 생활체육도시 부산, 부산은 스포츠 多

부산은 롯데 야구로 대표되는 도시인 만큼 부산시민들의 스포츠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부산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산시민의 스포츠 열기를 담아낼 체육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생활체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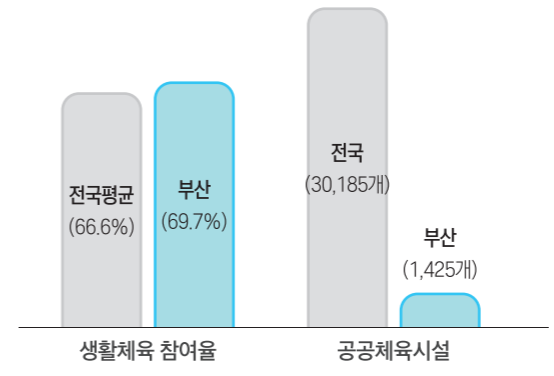
●●● 생활체육은 왜 필요할까요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증진 외에도 행복한 지역사회의 원천이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체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동호회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떨까요? 수평적으로 만나게 된 생활체육인들은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하면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터를 잡게 되면서,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그 만족감을 만드는 원천이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크게 보면 부산시민의 건강, 부산의 경제, 그리고 각종 산업 간의 파급 효과입니다. 스포츠와 생활체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생활체육은 부산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가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산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의 생활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투자는 시민들의 기대만큼 높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방문



스포츠산업 육성계획 정책 발표

●●● 부산광역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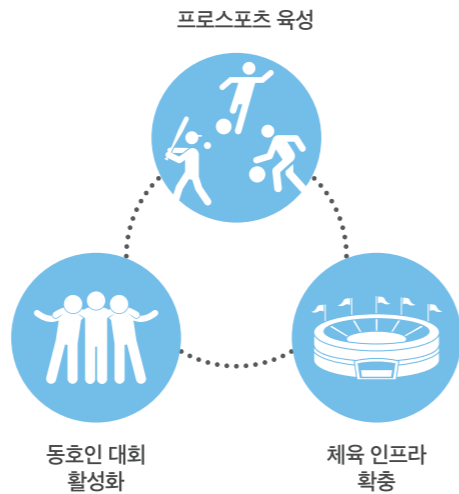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체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을 닫게 되면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생활체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광역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시설 조성, 그리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발판으로 부산은 '스포츠 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 스포츠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체육·문화활동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레저활동도 할 수 있는 '어르신 복합 힐링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호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동호회들이 모여 서로 즐기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는 곧 부산의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세 번째 '메인스포츠 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야구장의 재건축, 축구전용경기장 신설 등 부산의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많은 야구팀, 축구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직 야구장

네 번째 '생활 SOC'입니다. '생활 SOC'는 부산광역시의 15분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5분 도시의 핵심시설이 생활 스포츠 시설입니다. 생활 스포츠 시설은 공공의 영역에 있으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은 차별을 두지 않고 충분히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체육시설의 기능도 갖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이 '스포츠 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선진 체육도시, '스포츠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산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산 생활체육시설들의 질을 높이고 동호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발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죠. 또한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부산의 프로스포츠를 다양하게 육성해야 합니다. 부산시민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응원은 부산 정체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진정한 '스포츠 산업도시'로 변모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부산시민, 스포츠를 즐기는 부산시민, 그리고 '부산은 스포츠가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올 때일 것입니다. 부산이 꿈꾸는 관광 일류도시, 국제 허브도시, 문화도시와 함께 생활체육 천국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_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BAND

발로 즐기는 스포츠!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서구체육회는 부산 최초의 시민운동장인 '구덕운동장'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프로축구 아이파크*와 실업축구 부산교통공사**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발로 즐기는 스포츠와 연관이 많은 서구. 서구체육회에서는 올해 축구·족구·풋살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덕운동장 공사 관계로 2022년도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홈구장이다.
**현재 구덕운동장 공사 관계로 2022년도에는 부산아시아드보조경기장이 홈구장이다.

여성족구단·여성풋살단 창단

딱! 살기 좋은 서구 여성 구민들을 중심으로 여성족구단과 여성풋살단이 각각 출범하였다. 올해 3월 부산광역시서구축구협회에서는 'BALO 서구여자족구팀'을 창단하였으며, 14명의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꽃마을 족구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어 지난 7월 부산광역시서구축구협회에서는 '여성풋살팀'을 창단하였다. 15명의 회원들은 매주 구덕운동장 풋살장과 다목적구장에서 풋살을 즐기고 있다. 두 팀 모두 해당 종목을 사랑하는 서구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팀으로 성장하고자 팀을 꾸렸으며, 2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축구에 일가견 있는 조현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지도자를 중심으

로 재능기부를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체력과 실력 증진을 통해 서구 여성들의 저력을 전국에 과시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꿈나무를 위한 부산서구 i-LEAGUE

꿈나무들에게 축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서구체육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부산서구 i-LEAGUE'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부터 대회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대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 중이다. 제2회 부산서구 i-LEAGUE는 36개 팀 25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 중 9개 팀 60여 명은 서구에 소속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유소년들이 축구를 즐기고 있는 만큼 서구체육회에서는 대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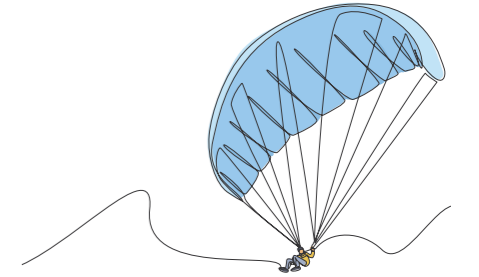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하늘 위 짜릿한 모험의 세계

영남알프스패러글라이딩스쿨·클럽



패러글라이더들을 보면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 올라 갔다는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가 연상된다. 새처럼 자유롭게 창공을 누비는 부산패러글라이딩협회 동호회 회원들에게서, 한번 빠져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하늘 위 짜릿한 모험의 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동을 느끼다

삼락공원의 푸른 잔디밭 위에 부산광역시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 동호회 회원들이 모였다. 그들은 영남알프스패러글라이딩스쿨·클럽과 레저월드패러글라이딩스쿨 회원들이다. 이날은 조만간 간월재에서 실시할 패러글라이딩을 대비해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평지에서 조종, 이륙, 착지 등의 연습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영남알프스패러글라이딩스쿨·클럽의 이호상 회장에게 처음 패러글라이딩을 접하게 된 계기를 묻자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래는 회사에서 산악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등산 장비를 구입하러 갔던 등산용품점에서 패러글라이딩 교육을 실시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옛날부터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던 터라 배워보고 싶어서 동호회에 들어오게 됐죠.”

그는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을 ‘짜릿함’과 ‘기대감’ 두 단어로 압축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멀리 못 날아가지만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200~300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 패러글라이딩이다. 하늘에 떠 있는 체공시간도 길게는 2~4시간까지 가져갈 수 있다. 경주에서 부산센텀까지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다고 한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오직 자신의 힘과 기술만으로 하늘을 나는 뿌듯함, 그리고 높은 하늘 위에서 광활하게 펼쳐진 산맥과 바다 등을 내려다볼 때의 장엄함 등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하늘 위에서 봤던 풍경, 느낌 등을 회상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다음 비행에 대한 기대감을 쌓아가는 것이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해보고는 싶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이호상 회장은 너무 겁 내지 말고 일단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한다.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율은 교통사고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처음 동호회에 오시면 사전에 장비의 구조와 비행 이론 교육을 시켜드리고 시뮬레이션 장치를 통해 동작 연습을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교육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개인 기량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온 지 하루만에도 바로 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습득 속도가 느린 분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처음에는 숙련된 전문강사와 함께 타면서 조종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어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혼자 비행을 할 때도 무전기를 통해 지상에서 강사들이 모니터링을 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탈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에 푹 빠진 회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도 하늘을 날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각자의 생업이 있는데다가 기상 상황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모이기는 힘들다고 한다. 일단 비가 오면 타지 못한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너무 적게 불어도 타지 못한다. 그래서 회원들은 일기예보를 주시하고 있다가 ‘아, 이날은 패러글라이딩 하기에 딱 좋은 날씨겠다.’ 싶으면 바로 네이버 밴드나 카페 같은 곳에 공지를 올려 함께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자 개인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회원들이 모이는 것이다.

패러글라이딩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처럼 자주 모이진 못해도 패러글라이딩 회원들의 동호회에 대한 애정은 그 어느 스포츠 동호회보다 뜨겁다. 그들은 GPS, 비행계기, 트래커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비행 궤적, 거리,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하늘 위 멋진 풍경이나 비행하는 자신의 모습도 촬영한다.

“비행이 끝나면 회원들끼리 서로의 기록을 비교하

면서 각자의 비행정보를 교류하거나, 비행 중 겪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가장 긴 체공시간이나 비행거리를 기록한 회원은 기분 좋으며 한턱 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웬만한 방송이나 영화 못지않은 웅장한 감동을 자아내 주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남는다.

“낚시하는 분들이 손맛을 느낀다고 말하듯, 저희도 바람에 따라 기체가 흔들릴 때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손맛을 느낍니다. 특히 상승풍을 타고 구름 위를 뚫고 날아올라가 눈 아래 펼쳐진 운해를 바라볼 때의 감동은 뭐라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하늘이 높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니, 회원들의 가슴도 덩달아 부풀어 오르고 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 계곡을 감상하며 시원한 바람을 가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을 알게 되어 함께 즐겁고 건강한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다음 주 비행을 대비한 이륙 연습을 하기 위해 잔디밭으로 달려나갔다.



Mini Interview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영남알프스패러글라이딩스쿨·클럽 이호상 회장



안녕하십니까. 부산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 ‘영남알프스패러글라이딩스쿨·클럽’의 이호상 회장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동력 장치 없이 맨몸과 글라이더만으로 하늘을 날 수 있어서 누구에게든 평생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멋진 스포츠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겁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운전 처음 배울 때는 겁나는 것 투성이지만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여유 있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패러글라이딩도 그런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동호회에서 세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비해 부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활공장이 많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대신 저희 회원들은 가까운 경남 지방의 진례, 밀양, 언양 간월재, 언양 고현산, 경주 벽도산 등지에서 기막힌 자연 풍경을 하늘 위에서 감상하며 즐겁게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푸른 하늘을 날며 인생사진을 찍거나,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의 짜릿함과 스릴을 느끼며 조금씩 더 높이, 더 오래 날아오르는 성취감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부산의 체육 꿈나무들을 위해 월계수스포츠클럽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sportclub.sports.or.kr/wgssc

옛 올림픽에서 월계수관은 승리를 의미했다. 월계수관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월계수스포츠클럽의 회원들. 그뒤로 '이기고 싶은가? 극기하라!'는 글귀가 이들을 더욱 빛내고 있다. 부산 체육의 꽃을 피워나갈 꽃봉오리들의 모임, 월계수스포츠클럽을 함께 만나러 가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월계수스포츠클럽

전국 최초 학교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인 월계수스포츠클럽. 부산체육중학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운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스포츠클럽이다. 부산의 체육 선수들을 육성하고자 2020년에 법인을 세우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다짐이 무색하게도 코로나19는 월계수스포츠클럽의 발목을 잡았다. 일반 센터가 아닌 학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멈춰야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하며 월계수스포츠클럽을 이끌어 왔으나, 코로나19라는 난관을 넘어서기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월계수스포츠클럽은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에서의 지원금을 시작으로 연계된 기관들의 든든한 지원은 월계수스포츠클럽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부산체육중학교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시설유지비용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채재웅 월계수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말했다.

전국 최초 학교 거점 스포츠클럽

월계수스포츠클럽은 현재 수영, 힙합에어로빅, 사격, 소프트테니스, 인라인롤러, 근대2종, 체조 등 총 7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120~130명의 회원이 찾아주고 있다. 이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보니 학교 공문을 통하여 스포츠클럽 홍보가 가능했고, 그렇게 각자 체육의 꿈을 가지고 회원들이 월계수스포츠클럽으로 모이게 된 것이다. 특히 사격과 같은 종목은 영도구뿐 아니라 부산 전역의 초등학교생들이 찾아올 정도로 많은 인기라고 한다. 일반 수업에서 뺄어나가 수영, 근대2종, 사격, 체조, 소프트테니스는 전문선수 육성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수 출신 강사들로 이루어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월계수스포츠클럽은 전문선수 육성반을 운영할 때, 회원 중 소질이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별도의 상담을 통해 선수반으로 등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굴된 선수는 더 많은 훈련을 통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월계수스포츠클럽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산체육중학교 학생들과의 교류전을 통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고취하고 있다.



스포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월계수스포츠클럽은 2020년부터 부산학교스포츠 클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스포츠돌봄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월계수스포츠클럽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가정 등, 체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건강 및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자 만들어졌다. 2020년에는 방과 후에 학생들을 부산체육중학교로 직접 데리고 와서 유도나 피구, 양궁 등 다양한 체육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후 다시 학교로 데려다주며 학생들의 돌보미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심해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2 곳을 선정하여, 강사를 직접 모시고 가서 수업을 진행했다. 이때는 운동뿐 아니라 역사 논술과 같은 공부도 병행하며, 공부와 스포츠를 별개로 두지 않는 모습에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고 한다. 올해는 스포츠돌봄교실을 잠시 쉬어가지만, 내년 부터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와 서부교육청이 협의하여 재개할 계획이라 한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 발굴을 목표로

월계수스포츠클럽에서 발굴된 선수가 시대를 거쳐 전국대회에 입상하며, 전문선수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채용 월계수스포츠클럽 사무국장. 그는 더 나아가 부산체육중학교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을 육성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선수 발굴을 목표로 삼되 발굴로 끝나지 않고 선수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두가 체육에 대한 취미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다. 덧붙여 다양한 종목에서 전문선수를 육성하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열심히 지원해주는 것이 월계수스포츠클럽의 몫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인기 종목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 종목뿐 아니라 문화예술 종목까지 넓혀가 학생들이 공부와 스포츠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월계수스포츠클럽 연혁

- 2020. 1. 20. 월계수스포츠클럽 창립총회
- 2020. 4. 20. 비영리법인설립
- 2020. 7. 1. 수영, 근대2종, 유도, 탁구 종목 프로그램 개설
- 2020. 7. 1.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협력 스포츠돌봄프로그램 시작
- 2021. 1. 1. 청동초등학교 체조부 월계수스포츠클럽으로 이적
- 2021. 1. 15. 부산체육중고등학교 MOU체결
- 2021. 4. 1. 사격, 인라인롤러 프로그램 개설
- 2022. 1. 1. 소프트테니스, 힙합에어로빅 프로그램 개설

월계수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주요 수상 내역

- 2022.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2종(수영, 육상) 여초부 단체 1위, 개인 3위 남초부 단체 2위



Mini Interview

원인성 회장

월계수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계수스포츠클럽의 원동력인 원인성 회장은 누구보다 부산의 체육 꿈나무들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 월계수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스포츠클럽입니다. 2019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 및 2020년에 법인으로 설립되며 학생들의 건강과 체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부산체육중학교와 영도구체육회,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의 끊임없는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이 ‘1인 1스포츠 개발’이라는 교육체육정책에 호응하며,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전문선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월계수스포츠클럽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전문 육성반 선수들, 부산체육중학교의 교원인 ‘땀이 강물이 되면 신이 잠에서 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학업과 스포츠 활동을 병행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여 필승합시다. 파이팅!”





부산 고교 야구의 양대 산맥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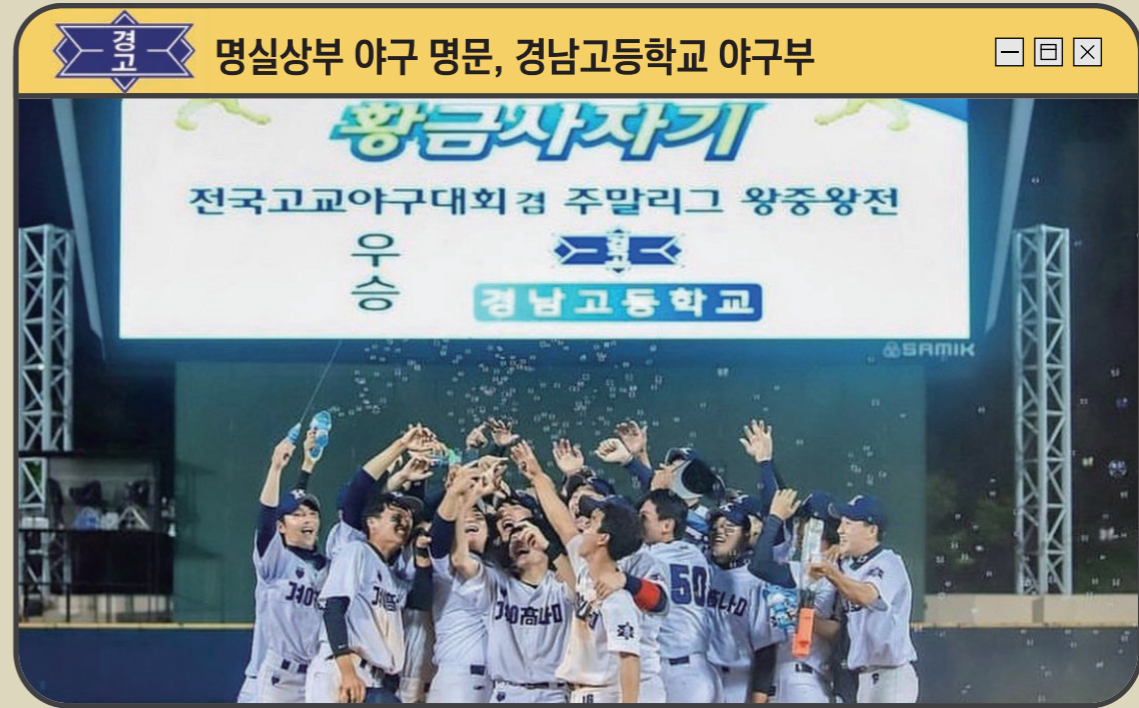
2022년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경남고등학교 야구부와 '제5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두 야구부의 눈부신 성과는 부산 야구를 넘어 우리나라 야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 주었다.

부산 야구, 우리나라 야구를 이끌다

지난 5월에 열린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경남고등학교 야구부가 1974년 이후 무려 4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경남고등학교 야구부는 1947년 제1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이번 우승은 통산 일곱 번째 우승이다.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고교야구 전국대회로, 단일 언론사 주최 야구대회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2011년부터 고교야구 주말리그 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는 권역별 리그를 거쳐 올라온 팀들의 왕중왕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은 '2022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권역별 경기'를 통해 참가 자격을 획득한 50개 팀이 승부를 겨뤘다. 이어서 8~9월에 열린 '제5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

회'에서는 부산고등학교 야구부가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1985년, 1986년, 1993년에 이은 통산 네 번째 우승이다.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전국의 고교야구팀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예선 없이 참가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승부를 가른다. 한국일보사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교야구축제로, 첫 대회는 1971년 8월에 열렸다. 2013년부터 사다리타기로 상대팀을 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팀이 참가하는 만큼 승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 흙 속의 진주처럼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자 훌륭한 선수가 기량을 펼치며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산 지역 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부산 야구의 저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진출처: 스포츠공화국, 부산고등학교, (사)한국야구위원회(KBO)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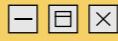


경남고등학교는 1942년에 부산 제2공립중학교로 개교하였다. 1946년에 경남공립중학교로 개명, 1953년에 경남고등학교로 다시 개명하였다. 야구부 역시 1942년에 부산 제2공립중학교 야구부로 창설된 이후, 경남공립중학교 야구부에서 경남고등학교 야구부로 명칭이 바뀌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남고등학교 야구부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3연승을 한 팀은 경남고등학교 야구부가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제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1949년 제1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등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경남고등학교는 야구 명문으로 우뚝 섰다.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출신 선수로는 고교야구 전설의 좌완 투수 장태영부터 최연소 감독 출신이자 지금은 해설가로 유명한 허구연, '조선의 4번 타자'라 불리는

이대호 등이 있다. 올해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경남고등학교 야구부는 청담고등학교 야구부를 상대로 7회 초에만 5득점을 하며 7대2 역전승을 거두었다. 5회 말까지는 청담고등학교 야구부가 2대0으로 앞서는 상황 이었는데,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타자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에 성공하며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어서 좌전 적시타로 첫 득점을 올렸으며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희생플라이로 역전에 성공한 후, 2타점 우전 적시타, 9회 초 우전 적시타, 2루타로 2점을 더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그리고 6회에 마운드에 올라 9회까지 실점하지 않은 나윤호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었다. 선수들이 단합력을 발휘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은 값진 결과라 경남고등학교 야구부는 더욱 큰 기쁨을 만끽했다.



高 자타공인 전국 최강,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1913년에 설립된 부산공립중학교는 1950년에 부산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부산중학교와 부산고등학교를 분리하였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1947년에 부산중학교 야구부로 창단되었으며, 1950년에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1962년에 제17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제1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고교야구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를 증명하듯 1963년, 1965년, 1966년에도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제84회,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총 6회 우승하며 최다 우승팀 중 하나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출신 선수로는 부산고등학교 야구부의 첫 전성기를 안겨준 김소식과 롯데 자이언츠의 에이스였으며 현재 해설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상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추트레인' 추신수 등이 있다.

올해 보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강릉고등학교 야구부와 겨뤘던 1대0 영봉 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4회 말에 희생번트를 내주는 위기가 있었지만, 5회 초 1루와 3루에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2루타로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며 점수를 얻었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대회 내내 호수비를 펼쳤고, 4강전까지 무려 세 번의 영봉 승을 하였다. 우완 에이스 원상현은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것과 동시에 우수투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지막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성영탁도 우수투수상을 수상하였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1점 차이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해 전성기 때의 영광을 재현하며 재도약의 불을 확실하게 지폈다.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VS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역대 우승 전적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2~4회(1947~1949), 26회(1971), 28회(1973), 31회(1976), 45회(1990), 53회(1998), 61~62회(2006~2007), 65회(2010)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1회(1949), 6회(1954), 20회(1968), 41회(1989), 49회(1997), 53회(2001)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1~3회(1947~1949), 9회(1955), 21회(1967), 28회(1974), 76회(2022)

보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28회(1998), 33회(2003)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17회(1962), 33~34회(1978~1979)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14~15회(1962~1963), 17~18회(1965~1966), 30~31회(1978~1979), 36회(1984), 43~44회(1991~1992), 55회(2003), 59회(2007), 62회(2010)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12회(1978), 16회(1982), 23회(1989), 26회(1992), 33~34회(1999~2000)

보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15~16회(1985~1986), 23회(1993), 50회(2022)

대표 현역 선수



이대호(롯데)



한현희(키움)



손아섭(NC)



추신수(SSG)



한동희(롯데)



한유섬(SSG)



김대유(LG)



김태군(삼성)

감독님 말씀

경남고 전광열 감독님

부산지역 고등학교 야구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학생 선수를 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고 박계원 감독님

경남고와 각각 중앙무대에서 우승하기는 역사상 처음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라이벌인 경남고 야구부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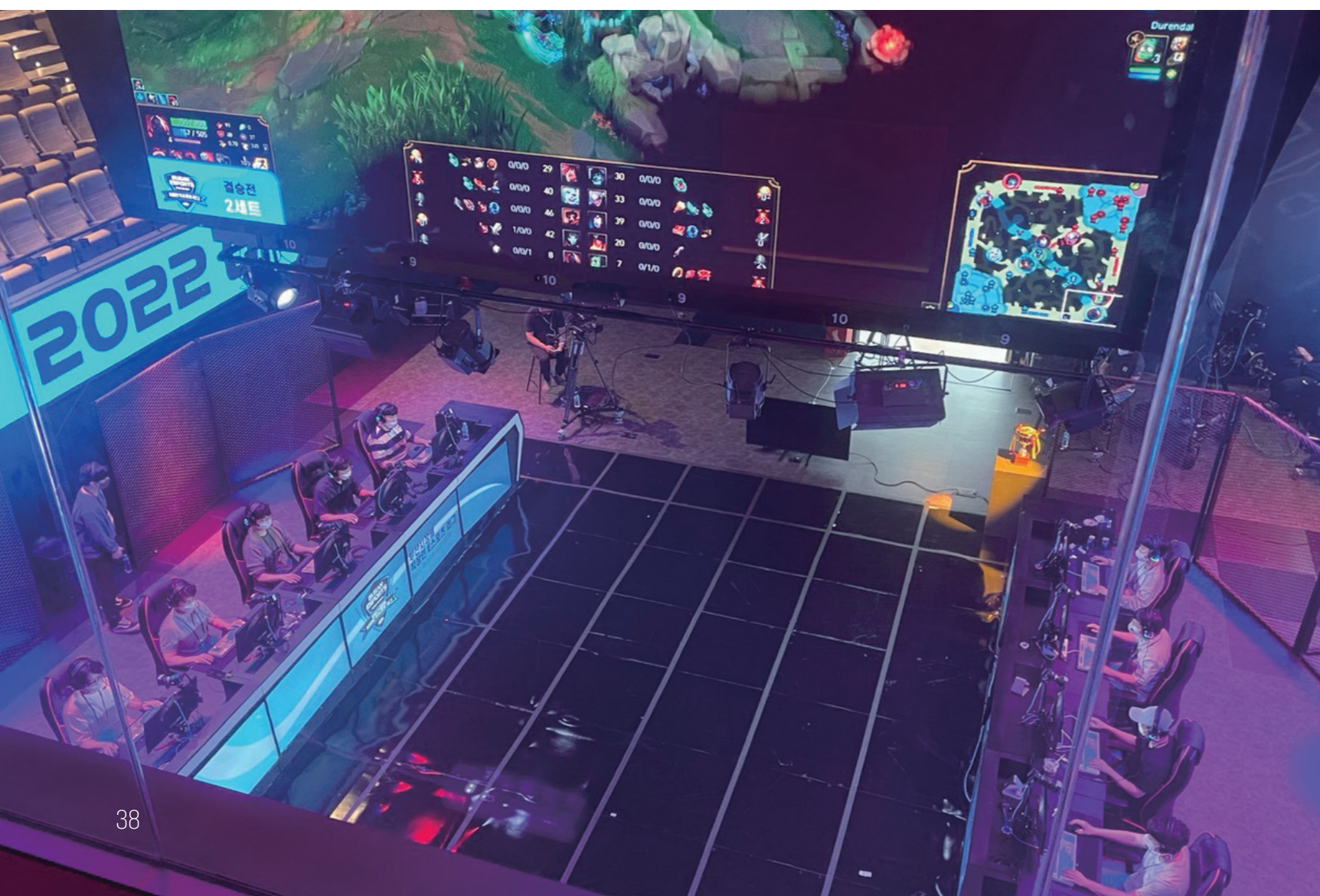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 속으로

글 _ 제2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이정민

전국 e스포츠인들의 치열한 열기를 엿볼 수 있었던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가 지난 9월 3일(토) 부산e스포츠경기장(BRENA)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매드러너 등 3개 게임을 통해 e스포츠 최강 직장인을 가리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스포츠 기자단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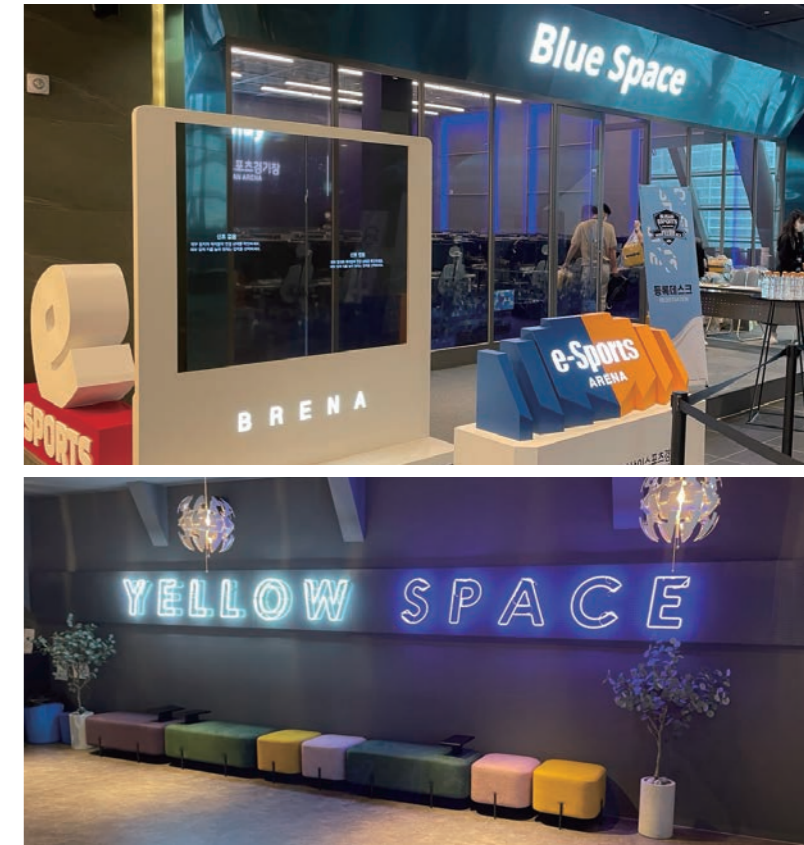
- 1기 김소연, 김수현, 송민수
- 2기 남윤주, 박은경, 반종완, 오수민, 이정민



우수한 참관 시스템을 갖춘 대회

선수들은 지난 8월 접수 및 온라인 예선을 마치고 9월 첫째 주에 본선과 결선을 치렀다. 리그오브레전드와 매드러너 종목은 '직장인부'로, 스타크래프트는 '직장인부'와 '소상공인부'로 나누어 경기가 펼쳐졌다. 대회 운영은 오전 9시 선수 체크인을 시작으로 본선 경기장에서 세 종목의 결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이후 결선 경기장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관 분위기를 좌우하는 해설에는 게임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있는 김정민·정명훈 위원이 맡았다. 본선 경기는 서면 삼성타워 15층 Blue Space에서 무관중으로, 결선은 16층 Main Arena에서 관중의 환호와 함께 각각 펼쳐졌다.

두 층으로 구성된 BRENA는 경기장·관중석·그 외 공간 등 크게 3구역으로 구분된다. 경기장은 72인이 동시에 경기할 수 있는 본선용 'Blue Space'와 6대6 경기가 가능한 결선용 'Main Arena' 경기장이 있다. 관중석은 Main Arena 옆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는 'BPUB', 10인 이내의 소수 관중이 독립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Suite Box', Main Arena를 내려다보며 응원할 수 있는 300석 규모의 'Main Stand' 등 3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팀의 굿즈를 판매하는 스토어, 지역 게임단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카페도 갖춰져 있다. 대회를 주관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측은 선수 및 관계자들이 움직이는 공간과 관객이 오가는 공간을 나눔으로써 대회 운영의 혼잡을 최소화했다.



참관을 넘어 참가로 이어지는 e스포츠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내의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매드러너'를 시범종목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매드러너 대회에는 다양한 기업의 직장인들이 참가했는데, 참가자들은 게임 캐릭터처럼 대회 내내 밝은 표정이었다. 순간의 판단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게임의 짜릿함은 일반 관람객도 즐길 수 있었다. 'Yellow Space' 체험실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며, 게임 진행 과정에 대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스태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양한 사진 스폿이 있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돋우었다.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를 통해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람객까지 즐길 수 있었던 축제의 장이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인정종목이기도 한 e스포츠 종목은 소수만 즐기는 놀이가 아닌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부산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팀워크로 이뤄내는
멋진 스포츠

야구






야구는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규칙과 포지션이 존재한다. 이 중 야알못(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한 야구의 기본 룰과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자.

야구 룰과 포지션

기본 야구 규칙

야구는 정해진 경기 시간 없이 '회' 단위로 9회 간 진행된다. 한 회에 원정팀이 먼저 선공을 하고 홈팀은 후공을 한다. 원정팀이 먼저 공격하는 것을 '초'라고 부르고 홈팀의 공격을 '말'이라고 부른다. 한회는 공격과 수비를 한 번씩 하는 것이며, 한 회의 공격 기회에 3번 아웃되면 공수가 교대된다.

야구선수

 <p>타자(batter) 공격팀에서 투수의 공을 치는 선수</p>	 <p>투수(pitcher) 수비팀에서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선수</p>	 <p>포수(catcher) 투구를 받고 홈플레이트를 지키는 선수</p>
---	--	--

공격 진행 방향

1루 → 2루 → 3루 각 팀 9명의 타자가 미리 순서를 정하고 이에 따라 공격이 진행된다. 공격팀의 선수는 한 명씩 홈의 타석에 나와 투수가 던진 공을 치면 1루, 2루, 3루, 홈을 순서대로 뛰며, 홈 베이스를 밟으면 1점을 획득한다.

타자가 아웃되는 상황

공이 땅에 떨어졌어도 타자가 베이스에 도착하기 전에 수비수가 던진 공이 먼저 도착할 때

플라이 아웃: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수비하는 선수가 잡았을 때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가 3개가 될 때

수비 포지션

1루수(first base man): 1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수비하는 내야수

2루수(second base man): 2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비하는 선수

3루수(third base man): 3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수비하는 내야수

좌익수(left fielder): 좌측에서 수비를 맡고 있는 외야수

중견수(center fielder): 외야 한가운데 지역을 맡아 수비하는 선수

우익수(right fielder): 오른쪽에 있는 외야수

오늘의 10분 운동

행복을 위한
행보(行補)

하늘은 높고, 구름은 없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초록빛을 띤던 나뭇잎은 부끄러운 듯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선선한 바람은 얼굴에 내려앉아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조금 걷다 땀이 나도, 가을바람이 우리를 지나가면 땀은 이미 식은 지 오래. 이 때문에 가을이 걷기 좋은 날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보다. 특히 걷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걷기에 대한 효과와 바른 자세를 배워 건강한 가을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



- STEP 1**
 가슴을 펴고 턱을 약간 당긴 채 시선은 전방 15~20cm를 바라본다.
- STEP 2**
 허리와 등은 곧게 펴고, 팔을 가급적 90도로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걸어준다.
- STEP 3**
 배에 힘을 주고 걸으며, 엉덩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한다.
- STEP 4**
 발을 디딜 때 뒤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땅에 디딜 수 있도록 한다.
- STEP 5**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보폭을 유지하며 걸어준다.

흘날리는 낙엽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함께 걸어요



동의보감 중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行補)가 낫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다.'는 허준의 건강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듯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어느 운동보다 뛰어나다. 먼저 소화 촉진을 도와주고,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주며, 체중감소와 혈압 조절 등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시원한 바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걷는다면, 기분도 전환되어 스트레스 완화의 효과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가능한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운동, 걷기! 우리 함께 걷는 운동이 주는 효과를 유념하며 힘차게 걸어 나가보자.



- 시선 EYES**
15~20cm 앞 전방을 주시한다.
- 팔 ARM**
가급적 90도 'L'자 유지한다.
- 손 HAND**
주먹을 가볍게 쥐는다.
- 몸체 BODY**
5도 앞으로 기울인다.
가슴은 내밀고 배는 힘주어 넣은 상태로 허리를 편다.
- 무릎 KNEE**
내디딜 때 완전히 편다.
- 보폭 STEP**
본인의 키 - 100cm
- 발 FOOT**
'1'자를 유지하며 뒤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전체를 든다.

나의 정신 건강을 지켜라!

치매 예방을 위한 3·3수칙

“어, 휴대폰 어디 갔지?” 손에 쥐고서도 휴대폰을 찾아본 경험은 흔하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해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흔한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치매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살펴보자.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다르다

치매란 인지기능이 정상이었으나, 후천적 원인에 의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증상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루이소치매, 파킨슨병 치매, 정상압 수두증,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70%의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발생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저하, 시공간 능력의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의 원인이 알츠하이머인지 단순한 다른 질환의 일환인지 개인이 구분할 수 없기에 반드시 병원에서 보호자와 함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 시 필수 지침

환자 혼자 방문하지 말 것.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어떤 점에서 이상을 느꼈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인지 저하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 또는 보호자가 느끼는 인지 저하를 의료진이 함께 확인하여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습관 3가지

1 신체적 해악

매일 TV만 보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일상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에도 좋지 않다. 또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 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가 뇌에 치매 유발 물질과 엉켜,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2 정신적 해악

7~8시간 적정 수면 시간을 지켜 뇌의 과활성을 방지하고,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분해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와 기억력에 중요한 해마 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나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중화해야 한다.

3 사회적 해악

모임에 참석해 음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술은 해마 세포를 죽게 만들어 뇌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매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한 명이라도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노년기에 금주해야 한다.

치매 예방에 좋은 습관 3가지

1 신체 활동

걷기, 뛰기, 맨손 체조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모든 신체 활동이 여기 포함된다. 또한 근육이 감소하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 정신 활동

독서, 신문 읽기, 라디오 듣기, 오디오북도 좋다. 활자나 귀로 들은 정보를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로 바꾸어 이해를 하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 다만 TV 시청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사회 활동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회 활동, 모임 등에 자주 나가면 도움이 된다.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지 않는 노력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니, 친구와 좋은 관계는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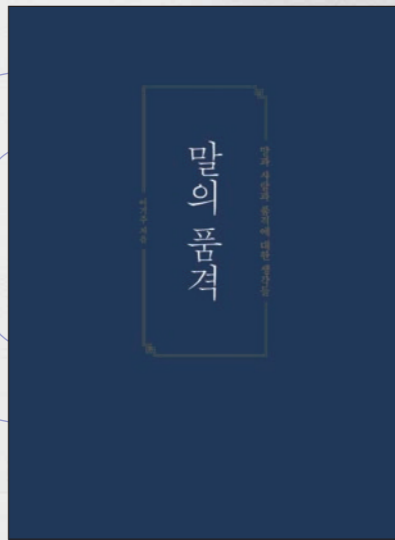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



「말의 품격」
저자 이기주 / 출판사 황소북스

인향(人香)은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사물의 형체가 굵으면 그림자도 굵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마찬가지로 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내는 마음의 소리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됴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品)'의 구조를 뜯어보면 입 '구(口)'가 세 개 모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체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人香)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은 한(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千) 사람의 귀로 들어가며, 끝내 만(萬)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그렇기에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길,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Composition of Books

서문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1강 이청득심(以聽得心)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존중 ...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경청 ...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2강 과언무환(寡言無患)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침묵 ... 때로는 말도 침이 필요하다
간결 ... 말의 분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3강 언위심성(言爲心聲) 말은 마음의 소리다

인향 ... 사람의 향기
언행 ...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4강 대언담담(大言炎炎) 큰 말은 힘이 있다

전환 ...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을 안다
지적 ... 따뜻함에서 태어나는 차가운 말

생활체육 동호인의 대축제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의 최대 행사인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지난 9월 24일(토)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포함한 12곳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대회 운영이 어려웠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검도를 비롯한 총 16개 종목에 3,4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면서 명실상부 부산시민 체육 대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대회 개최식엔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부산광역시체육조합회 '청소년부 치어리딩' 선수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16개 구·군 선수단은 각각 개성을 살린 소품과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체육회 직원들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현수막을 직접 들고 입장하였으며, 대회장 곳곳에 가로등·현수기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종목별로 구·군 대항전의 뜨거운 경기 속에 제33회 부산 시민체육대회는 성황리에 마쳤다. 대회 결과, 검도·체조·탁구·테니스·당구 등 5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북구 선수단이 '경기력상'을, 게이트볼·족구·파크골프·태권도 등 4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부산진구가 '성취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시민체육대회를 통해 부산시민이 하나되어 시민 화합의 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회개요

- 일시 2022년 9월 24일(토) 09:00~17:00
- 장소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포함 12개소
- 주최 부산광역시체육회
- 주관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규모 16개 구·군 3,400명(선수 및 임원 등)
- 종목 16개 종목(검도, 게이트볼, 줄넘기, 그라운드골프, 족구, 체조, 국학기공, 탁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당구, 볼링, 족구, 파크골프, 태권도)

대회결과

종합시상

- 경기력상 북구
- 성취상 부산진구
- 질서상 동래구, 사하구, 기장군
- 화합상 강서구, 남구, 금정구
- 건강상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 경기운영상 볼링, 테니스

종목별 결과

종목	1위	2위	공동 3위
검도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남구
게이트볼	부산진구	사하구	금정구·사상구
줄넘기	남구	동래구	사상구·서구
그라운드골프	금정구	북구	남구·사상구
족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기장군
체조	북구	남구	동래구·강서구
국학기공	동구	연제구	해운대구·사상구
탁구	북구	해운대구	동래구·사상구
배구	동래구	북구	강서구·사상구
테니스	북구	해운대구	강서구·수영구
배드민턴	남구	기장군	금정구·동래구
당구	북구	연제구	남구·영도구
볼링	동래구	수영구	부산진구·연제구
족구	금정구	사하구	기장군·동구
파크골프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사하구
태권도	부산진구	기장군	사하구·강서구

SPORTS NEWS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남녀 최고 장사 가리며 대회 성료

지난 9월 3일(토) 부산광역시씨름체육관에서 16개 구·군 남녀선수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지역 최고의 장사를 가리는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6개 구·군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남자 3개 부(청년부·중년부·장년부), 여자 3개 부(60kg 이하·70kg 이하·80kg 이하)로 나눠 경기를 펼쳤으며, 단체 종합 시상과 개인별 시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대회 개인 입상자에게는 전국대회인 2022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부산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가 씨름 동호인들의 화합과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민족씨름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여가 스포츠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통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SPORTS NEWS



부산 학교운동부 및 대학 체육동아리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초·중·고·대학·클럽 등 61개 팀, 총 3억 원 지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7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운동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지방비와 국비 및 부산도시가스 기업의 후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초·중·고·대학·클럽 등 61개 팀을 선정해 총 3억 원 규모의 훈련 장비(용품)를 지원하였다.

우수 전문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용품 지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도시가스는 2020년부터 학교운동부 장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대학 체육동아리 용품 지원은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37개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교운동부의 훈련 여건 향상 및 생활체육 실천을 통해 체력증진과 스포츠 참여 활동이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

구·군체육회 소식

서구체육회

2022 장수체육대학 교실

서구 관내 장수체육대학 수업이 지난 9월 1일(목)부터 시작되었다. 서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장소: 해강노인관), 건강댄스(장소: 서대신1동 주민센터), 게이트볼(장소: 구덕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3개 종목이 진행 중이다. 서구체육회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삶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체육회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 종합우승

동구체육회는 지난 9월 3일(토) 열린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남녀 각 3체급 총 6개 체급 경기에서 우승 2체급(김성민, 고은정), 준우승 1체급(박대성)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쁨을 만끽했다. 앞으로 동구체육회는 민속 종목인 씨름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영도구체육회

2022 하반기 생활체육교실(검도, 탁구)

영도구체육회는 영도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으로 검도교실과 탁구교실을 각각 개설했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영도구 주민 및 영도구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검도교실은 동삼검도관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매주 월·수·금 진행되며, 탁구교실은 몽탁구장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매주 월·수 운영된다.



부산진구체육회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전 종목 참가 및 성취상 수상

지난 9월 24일(토)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외 12개소에서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진구에서는 선수단 189명이 전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게이트볼·족구·파크골프·태권도 등 4개 종목 우승, 볼링·검도 등 2개 종목이 3위를 차지하며 '성취상'을 수상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는 축제 분위기 가운데 성황리에 대회 참가를 마쳤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5회 해운대구청장배 서핑대회

지난 9월 24일(토) 제15회 해운대구청장배 서핑대회가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다. 해운대구의 지역적 환경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특색있는 스포츠를 권장하고 있는 해운대구체육회는 서핑 종목 대중화, 해양스포츠 활성화, 초보 동호인 및 학생들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축제의 한마당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참가, 질서상 수상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9월 24일(토) 열린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에 13개 종목 약 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개회식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사하구 캐릭터 고우니를 앞세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과 꽃풍선을 들고 입장하기도 했다. 사하구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 게이트볼·축구 2위, 족구·태권도·파크골프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질서상을 수상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금정구체육회

제35주년 금정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금정구축구협회는 지난 9월 18일(일) 선동잔디구장 외 3개소에서 제35주년 금정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태풍 소식으로 대회에 차질이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맑은 날씨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동호인들은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축구를 즐겼다. 대회 결과 우승은 잔매축구회, 준우승은 남산축구회가 각각 차지하였다.



강서구체육회

2022 강서구청장배 어르신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지난 9월 17일(토)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2022 강서구청장배 어르신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 등 총 3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동호인 4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어르신 동호인 체육대회를 통해 클럽별 상호친목을 다지고,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연제구체육회

제1회 연제구체육회장배 인라인대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9월 25일(일) 삼락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유치부·초등부 약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연제구체육회장배 인라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연제구롤러스포츠연맹은 이날 행사를 통해 모든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유치부·초등부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회 결과 1위 편편짐클럽, 2위 STS인라인클럽, 3위 성대육인라인클럽이 각각 차지하였다.



수영구체육회

야외 생활체육 광장수업 헬스&야외 피트니스 교실

수영구체육회는 무더위로 잠시 중단되었던 헬스&야외 피트니스 생활체육교실을 9월부터 재개하였다. 광장수업은 수영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인원·연령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옆 데크에서 2회 진행되고 있다.



사상구체육회

사상구청장기 태권도·볼링대회 개최

지난 9월 3일(토) 동서대학교 민석체육관에서 2022 사상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23개 팀 558명이 출전하였으며, 신주례태권도장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 9월 4일(일) 반도볼링장에서 제18회 사상구청장기 볼링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볼링대회에 48개 팀 200명이 참가하였으며, 선수들은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하였다. 대회 결과 유니크클럽이 우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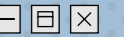
기장군체육회

제18회 기장군초등학교축구대회

지난 9월 17일(토) 기장 월드컵빌리지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제18회 기장군초등학교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관내 11개 초등학교 200여 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출전하였으며,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축구대회를 마쳤다. 대회 결과 우승 달산·칠암초등학교, 준우승 대청·좌천초등학교가 각각 차지하였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부산국민체육센터

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현장실습 진행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과 협약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합격자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실습생들에게 다양한 종목에 따른 프로그램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 스포츠 심리에 따른 상담, 연령·수준별 지도 대상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지도 중이다. 더불어 이번 현장실습 기관 지정으로 수영, 탁구, 보디빌딩, 에어로빅, 배구 등 총 5가지의 종목의 연수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 운동 지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20년 이상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생들의 올바른 현장 지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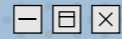


하반기 신나는주말체육학교 댄스 수업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댄스를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신나는주말체육학교를 진행한다. 9월 3일(토)부터 12월 17일(토)까지 15주에 걸쳐 운영되

는 신나는주말체육학교는 댄스스포츠와 K-POP댄스 수업이 진행된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주말체육학교를 연계해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하반기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수영교실 개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지난 9월부터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인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수영교실을 시작하였다. 이번 수영교실은 초급·중급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맞춤 수업을 제공하

게 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평소 학업에 지친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수영을 통해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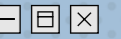
영도국민체육센터



어울림 친선 탁구대회 개최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지난 9월 22일(목) 어울림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탁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남·여 단식경기, 남·여 복식

경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어울림 친선 탁구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뛰어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실내빙상장



다송초등학교 빙상체험학습 진행

지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 동안 다송초등학교 빙상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다송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총 229명이 부산실내빙상장을 방문해 빙상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빙상체험학습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단계별 행복체험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NEWS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선수단 출전



10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6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부산선수단이 출전한다. 총 28개 종목에 참가하며, 선수 409명, 임원 및 지도자 145명 등 총 554명이 출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게 된다.

부산선수단은 100일 강화훈련을 기점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6일(목)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 내빈을 모시고 출전 의지를 모으는 결단식을 가지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실업팀(탁구, 육상, 수영)과 역도, 육상, 탁구, 론볼 및 뇌성축구와 시각축구 종목에서는 상위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이클, 조정, 댄스스포츠 종목은 괄목한 성장을 보이는 만큼 종합 5위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NEWS

공공스포츠클럽 소식

거점스포츠클럽

거점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스포츠클럽 중 69개소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였다. 거점스포츠클럽은 테니스, 역도, 체조, 펜싱 등 4종목을 운영하고 있어 지정스포츠클럽이 되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전문체육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주말체육학교 테니스, 헬스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등학생의 레저 활동과 체력강화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헬스, 테니스 등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헬스는 매주 토요일 사직역도훈련장에서, 테니스는 매주 일요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신나는주말체육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운동을 즐기고 있으며, 흥미를 느낀 아이들은 거점스포츠클럽 기존 프로그램으로 연계되고 있는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2022 청소년스포츠타마당 스쿼시대회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선수반은 지난 9월 3일(토) 청주국제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2022 청소년스포츠타마당 스쿼시대회에 출전하였다. 이번 대회는 학생 선수 1명과 일반학생 2명 등 총 3명의 선수가 한 팀으로 참여하였으며, 서브 타 명중 릴레이 드라이브·VR스쿼시·구속 측정 등 총 4경기를 합산하여 최고점의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U-15 1등 김슬아 선수(이빈, 이성준 학생)
- U-15 2등 김민부 선수(정현준, 김수환 학생)
- U-13 베스트 팀워크상 이은채 선수(이지윤, 이준서 학생)



브론스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190 ml
BRONS COFFEE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AMERICANO HAZELNUT FLAVORED

브론스 아메리카노 블랙 190 ml
BRONS COFFEE 아메리카노 블랙 AMERICANO BLACK

BRONS COFFEE AMERICANO HAZELNUT FLAVORED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BRONS COFFEE AMERICANO BLACK 아메리카노 블랙

BRONS COFFEE AMERICANO HAZELNUT FLAVORED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BRONS COFFEE AMERICANO BLACK 아메리카노 블랙

BRONS 브론스 / 커피 파우치 음료

자연생각 자연생각 / 아이스티 파우치 음료

아메리카노 블랙 |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 애플망고 | 청포도 | 복숭아

HEE CHANG YANGSAN CAFE BOMB BRONS COFFEE 자연생각

본사 / 50592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7길 45 / TEL | 055-911-3000 / FAX | 055-912-1212 / www.heechang.com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라주건설(주) 태하건설(주)



2007년
대통령 표창 수상

2010년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년
부산문화대상
경영부문 수상

양방향 척추내시경!



당신의 척추·관절 질병과 싸워줄 박원욱병원!

척추 · 관절 · 뇌질환 · 스포츠의학 · 통증치료



개인별 스포츠의학 재활치료 시스템

박원욱병원

진료 시간 월요일: 09:00 ~ 18:00 화요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점심시간: 12:30 ~ 13:30

진료 내용 척추·관절(정형외과, 신경외과)/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병원 위치 지하철 2호선 광안역 5번 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4)

진료 문의 1544-7582
www.parkspine.co.kr www.scoliosis.co.kr

유권집 담보대출

집안에서 간편하게!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진짜! 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

ONE아파트담보대출



담보대출도 역시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



ONE하는 상품을 선택!
고정금리, 변동금리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ONE하는 용도에 맞게 신청!
아파트 구입할 때, 갈아타고 싶을 때,
생활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필요할 때

ONE하는 직업으로 누구나 가능!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기타소득자까지

※ONE아파트담보대출은 개별 대출상품이 아닌 상품 조건 제공을 위해 구성한 상품 집합체를 의미하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하시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알아두실 사항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신용상태 및 저의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1074 (심의일자 2022.08.25) 유효기간 2022.09.06 ~ 2023.08.31